

청소년 - 그들이 위협받고 있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이 발간한 2003년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인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12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거의 절반이 25세 이하이다.

이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으며 전체 청소년의 4명중 1명이 극도의 빈곤에 처해있다. 무엇보다도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문제는 에이즈이다.

교육, 보건 등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에이즈에 의해 편부모 혹은 고아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희망 청소년 성건강을 위하여

“ 청소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는 에이즈이다. 청소년의 성 건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의 질병 - 에이즈

매 14초마다 청소년 한 명이 에이즈에 감염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전세계 신규 감염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이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 청소년 중 자신이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에이즈로 부모 중 한 명 또는 모두 사망한 청소년들은 감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성매매나 범죄 활동에 뛰어들고 있으며 불명예와 차별로 시달리고 있다.

미래의 희망 청소년을 위하여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임신을 줄이고 에이즈 확산을 예방해야 한다. 즉, 청소년 연령에 알맞는 성정보를 제공하고 성관계 자체를 포함하여 책임있고, 안전한 성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가정, 학교 및 시민사회와 종교계, 청소년 그룹 등 각급 기관을 통한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대중매체에 영향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드라마와 같은 대중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도 필요하다.

청소년 성·생식보건 서비스 높여야

청소년들의 성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성관계를 갖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결혼 연령이 상승하고 성관계 시기가 빨라짐으로 널리 만연되고 있는 청소년 임신과 높은 성인성 질환 및 에이즈 감염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성 상담을 포함하여 청소년에게 친근한 성/생식보건 서비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년 시술되고 있는 약 2,000만 건 이상의 불안정한 인공임신중절의 1/4은 적어도 15세~19세 사이의 여성들에게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청소년들의 생식보건증진 필요성은 더욱 더 높아진다.

청소년의 성건강이 우선

다음세대로 이어지는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청소년 생식보건 및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정책적인 지원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현재 12억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이들의 성공과 행복은 교육 기회 등 자원을 얼마만큼 제공하느냐에 달려있다.

청소년들에게 책임있고 건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정보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남고생 18%, 여고생 8%는 이미 성관계 경험이 있고 1.5%는 성병에 감염된 적이 있으며 전체 인공임신중절의 43%는 13~24세의 미혼남녀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성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성병검사 및 치료, 임신검사 등 성건강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를 높여야하는 시대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성적 활동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성건강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까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계 청소년 문제와 함께 우리 청소년 문제를 짚어보고 성건강을 위한 현실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PPFK**

* 출처 : 2003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는 유엔인구기금과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판을 발간하여 인구 문제를 세계적인 이슈로 여론화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8일 '청소년 인구 12억, 청소년 보건과 권리증진'이라는 주제로 세계인구현황보고서 발간 기념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협회는 2003년부터 청소년 성건강 클리닉 사업을 인천, 대전/충남, 대구/경북, 전북지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교육, 기두 상담, 캠페인 등을 통해 성 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임신 및 성병검사 등 성건강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